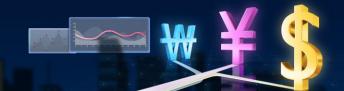
Eugene's FICC Update





	1124-102								
	Fixed	d Income		(단위: %,bp, 틱)					
			1/10일	1D	1W	YTD			
	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561%	6.1	7.9	-3.5			
		한국 국고채 10년물	2.837%	5.9	8.3	-1.8			
	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27.6	27.8	27.2	25.9			
		3년 국채 선물(KTB)	106.82	-18.0	-11.0	17.0			
		10년 국채선물(LKTB)	117.40	-58.0	-60.0	48.0			
	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378%	11.6	9.8	13.9			
		미국채 10년물	4.760%	9.6	16.1	17.5			
	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38.2	40.2	31.9	34.6			
		독일국채 10년물	2.570%	3.0	14.6	20.6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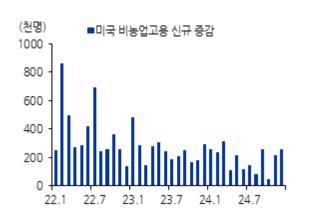
4.544%

15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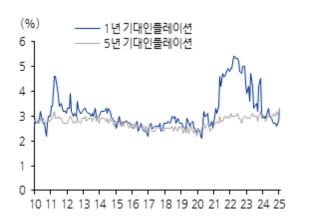
5.6

17.6

미국 비농업고용 신규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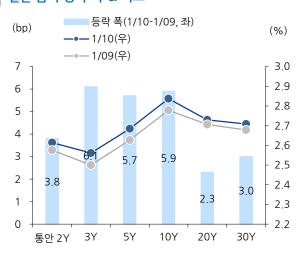


미국 기대인플레이션 동향

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호주국채 10년물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
- 전일 보먼이사를 비롯한 연준 인사들의 신중한 금리 인하 발언으로 약세 출발. 미 고용보고서 발표 앞둔 경계 감도 지속되며 금리 상방압력 가중
- 야당 대표, 경제 회생 위해 임시 조치라도 신속히 시행 해야하며 그 첫번째가 추경임을 언급
- 오후 중 바클레이즈가 이달 금통위 동결 전망을 지지한
 다는 소식이 확산되자 약세폭 확대. 외국인, 장 중 국채 선물 순매도하며 약세 흐름 견인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 지표 호조 속 인하기대 축소
- 12월 NFP, 예상치를 10만명 가량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를 보임. 실업률은 예상 및 전월치를 하회
-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, 이날 고용보고서를 가리켜 경기 과열 징후는 아니라고 평가.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고 발언
- 미시간대 1년 기대인플레, 5월 이후 최고치 기록한 가 운데 5~10년 기대인플레는 17년 중 신고점 경신.
- 금일 일본 성년의 날로 휴장. 한국 12월 실업률 발표 예정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

FX 8	FX & Commodity					
		1/10일	1D	1W	YTD	
	원/달러	1,465.00	0.3%	-0.2%	-0.5%	
	달러지수	109.65	0.5%	0.7%	1.1%	
	달러/유로	1.024	-0.6%	-0.6%	-1.1%	
환율	위안/달러(역외)	7.36	0.1%	0.0%	0.4%	
	엔/달러	157.83	-0.2%	0.3%	0.5%	
	달러/파운드	1,221	-0.8%	-1.8%	-2.4%	
	헤알/달러	6.11	1.2%	-1.2%	-1.2%	
	WTI 근월물(\$)	76.57	3.6%	3.5%	6.8%	
상품	금 현물(\$)	2,690.68	0.8%	2.0%	2.5%	
	구리 3개월물(\$)	9,091.50	0.1%	2.4%	3.7%	
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+4.50원 상승한 1,465.00원에 마감. 야간거래는 1,472.00원 마감.
- 간밤 달러는 보합권에 머물렀고, 달러-원도 전거래일 대비 +0.50원 상승 출발. 오전 중에는 약보합권에서 등락했으나, 점심 이후부터 달러 반등에 연동되며 상승 전환해 꾸준히 반등.
- 강중 특별한 이슈는 없었으나 미국 고용 지표를 앞두고 달러 강세. 다른 아시아 통화 대비해서는 원화의 상대 적 강세 나타남.

원달러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에 급등.
- 미국 12월 고용은 +25.6만 명 증가해 시장 예상을 9만 건 가량 상회. 실업률도 한 달 만에 4.1%로 반락.
- 연말 계절성에 따른 일부 산업의 파트타임 일자리 증가 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, 고용이 강하다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어려움. 4.1%의 실업률이라면 2%대 중반의 인플레이션에서 굳이 인하를 할 필요가 없음.
- 고용 서프라이즈와 함께 기대인플레이션도 급등. 1월 미시간대 소비자 1년/5년 기대인플레는 모두 3.3%로 각각 +0.5%p, +0.3%p 급등.
- 이번주 달러-원 환율은 1,460~1,490원 범위에서 등락 예상. 연금 환혜기 경계심에도 달러 강세 재료는 아직 소멸되지 않음.